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엘레강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고 현 진

전국 대학교 의상 텍스타일 학부 의상학 전공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legance Expressed on Fashion Since 1990s

Hyunzin Ko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04. 2. 1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elegant dressing visualized in modern fashion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elegance in dress and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from the holistic viewpoint. Elegance in dress is based upon the idea of aristocratic taste cultivated by good breeding, considering from the documentary study. It is expressed visually through not only the carefully contrived dress but also a sort of aura of dressed body with skillful ease. The aesthetic values of elegance consist of luxury, nobility, refinement, femininity, harmony. To grasp the trends of elegant styles since 1990s, contents analysis of the articles related to elegance in Vogue has been done. As a result, they have been classified into four groups of elegant styles which are Classic, Elaborate Couture, Soft Minimalism, Kitsch Elegance. Classic Elegance and Elaborate Couture represent traditional ones with conservative viewpoint. Soft Minimalism Elegance is a modern version of elegance. According to postmodernism as a open system, even kitsch has been refined to keep accompany with elegance for aristocratic taste of high class.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fashion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elegance has been one of the significant aesthetic categories, resulting from the absolute domination of taste of high society. However in the end of 20th century it seems to start to fade in fashion trends such as mass fashion, youth culture, casual fashion etc. Rather, it can be thought that elegance has been expressed as one of the aesthetic values in dress, by virtue of its value of high class as well as its conservative stability.

Key words: Aesthetic characteristics, Classic elegance, Elaborate couture elegance, Soft minimalism elegance, Kitsch elegance; 미적 특성, 클래식 엘레강스, 장식적 쿠튀르 엘레강스, 소프트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키치 엘레강스

I. 서 론

복식의 역사, 패션 저술에 있어 복식미, 패션 스타일과 감각을 설명하는 용어의 하나로서 엘레강스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패션 트렌드 분석 기관을 통해 1996년 S/S, 1997년 S/S, 2000/01 F/W, 2001/2002 F/W, 2003 S/S, 2004 S/S 등에 걸쳐 ‘초(超) 부르주아(Ultra Bourgeois)’, ‘현대화된 엘레

강스(Modernized Elegance)’, ‘세련(Refine)’ 등의 패션 테마 아래, 고급 지향, 품질 지향의 시대에 맞는 고품격의 우아한 이미지로서 계속적으로 거론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강스는 정확한 개념의 구축 없이 갑작적인 언어 체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비평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포스트모던 시각을 토대로 엘레강스보다는 ‘비-엘레강스(inelegance)’적인 개념들을 연구하는 현

상들(안선형, 1994; 김정숙, 1996; 최정화, 유영선, 1998)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미학은 오랫동안 보잘 것 없고 평범한 것으로 배척되던 반엘리트적인 나쁜 취향 등을 중심에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특정 시공간에 나쁜 취향과 예술, 디자인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좋은 취향의 예술, 디자인도 공존한다. 포스트모던의 해체된 상황에서 비-엘레강스의 개념과 더불어, 정제되고 품위 있는 모습을 필수로 하는 고급의 좋은 취향으로서 엘레강스 개념을 재고찰하는 것은 보다 폭넓은 사회 문화 현상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에 나타난 엘레강스 개념을 보다 총체적 관점으로 고찰하고, 그 미적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우아한 옷차림의 구체적 현상을 분석, 기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적 범주, 취향을 다루고 있는 미학, 사회학 담론들, 복식 미학 및 복식사를 다룬 선행 연구들 등을 통해 복식에 나타난 엘레강스 개념과 사회, 문화의 구조 내에서 갖는 미적 가치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엘레강스 스타일의 정체성과 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 전문 잡지 미국 *Vogue*에서 얻은 실례들을 내용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Vogue*는 19세기 말 창간된 이래 현대까지 가장 주목 받는 하이패션 저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급 취향으로서의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인 본 논문에서는 실증적 연구 자료로서 *Vogue*를 선정하였다. 그 중 패션 전문 칼럼 “뷰(View)”와 “포인트 오브 뷰(Point of View)”를 고찰하였는데, 각 기사 속에서 스타일의 감성 이미지, 넓게는 미적 특성을 담고 있는 형용사를 추출함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엘레강스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그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한다.

II.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대한 고찰

1. 복식에서의 엘레강스 개념에 대한 고찰

I) 엘레강스의 일반적 개념

사전(Webster사전, 1961; Oxford사전, 1989; Empas사전, Yahoo사전)을 통해 그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엘

레강스는 좋은 훈육, 좋은 취향을 바탕으로 사람의 복장, 외모, 언행, 태도 그리고 예술, 디자인, 일상 등의 대상(對象)에 있어 발현된 세련된 사치, 취향, 매너, 품위를 뜻하며, 이는 결국 고급의 탁월한 아름다움, 섬세하고 미묘한 아름다움으로 기분 좋은 매력, 패를 유발하는 것이다.

엘레강스에 포함된 좋은 훈육이라는 의미는 타고난 좋은 환경을 암시하거나 그런 기회에 노출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계층적 개념이다. 또 정교하게 훈련된 좋은 취향 역시 교육의 기회를 통한 미적 경험과 관련되었으므로 소수 상류계층의 영역으로 배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복, 음식, 주거 등과 같은 일상 용품의 대상에 있어 취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던 Bourdieu(1979/1997)에 따르면 취향을 반영하는 아비투스, 즉, 한 개인의 사회적 문맥에 의하여 가르쳐진 획득된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문화적 실제는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혹은 교육체계를 통해 습득되며 계층적 속성을 반영한다. 계층의 지표로서 눈에 띄게 구별되고 가장 특권적인 좋은 취향과 문화는 문화적 혜택모니를 줘고 있는 상류 계층의 선점물이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류계층의 귀족적 취향은 거칠고 조잡함, 저속한 본능, 물질적 필요와 거리를 둔 세련된 사치 취향으로 고가, 진귀한 제품을 풍부히 사용하는 사치와 모든 실천의 미학화, 형식화, 그리고 그에 따른 귀족적 품위의 에토스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거칠고 직접적인 대중적 취향과는 달리 완곡함을 갖는 현학적 패션, 가진 자의 초연한 우월함을 반영하는 상류계층적 미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귀족적 취향은 상류계층적 좋은 취향의 의미를 근원에 두고 있는 개념인 엘레강스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학에서 미적 범주의 하나로서 우미라는 용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엘레강스는 기교의 훈련에 의해 연출된 자연스럽고 품위있는 세련미 그리고 여성적인 매력미로서 섬세, 연약, 경쾌, 부드러움 등의 특성을 갖고 남성적인 위엄, 강대한 숭고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정의 완전함, 적도의 갈등 없는 미, 중용, 이성과 감성의 완전한 조화인 ‘아름다운 혼’(Schiller, 1999)이 지닌 현상의 표출로서의 조화의 미를 의미한다.

요컨대 엘레강스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 취향으로

서 사회, 문화적 접근, 미적 범주로서의 미학적 관점을 종합해볼 때 엘레강스의 미적 특성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가의 진귀한 것, 양보다는 품질을 중시, 필요로부터의 거리를 두는 사치성과 예절, 규칙, 질서, 청결의 형식 중시 에토스, 본능적쾌락이나 안일한 통속성 거부와 그를 위한 자기 조절, 그리고 완곡한 표현, 초연한 태도 등의 품위성을 갖는다. 기교의 훈련에 의해 자연스러움을 보이는 세련성을 가지며, 여성적 매력미로서 남성적 숭고와 대비되어 경쾌, 유연, 미묘, 섬세 등의 여성성과 더불어 이성과 감성의 조화, 적도의 조절된 갈등 없는 미의 조화성을 갖는다. 이 중 세련성과 조화성은 특히 사치성, 품위성, 여성성을 나타내는 내용들과 공유하는 영역이 많으므로 엘레강스의 미적 특성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복식에서의 엘레강스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장을 본다는 것은 복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식을 착용한 신체 즉 얼굴 표정, 신체적 제스처, 태도 등 각종 신체적인 언어를 더불어 바라본다는 의미에서이다. 복식을 착용한 신체의 운용 방식은 Bourdieu(1979/1997)의 지적과 같이 아주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체현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계층의 상징물이 된다. 상류계층의 복식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육체노동과는 무관한 무위적 여가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복식에 나타난 엘레강스는 상류계층의 육체노동으로부터 자유, 귀족적 무위와 여가를 바탕으로 형성된 아비투스, 라이프스타일을 기본 전제로 한 세련된 귀족적 취향으로 표현된다. 이는 충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학습에 근거한 숙달된 기교의 친숙함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에 있어 진정으로 우아한 스타일은 세련된 기교를 보이는 의복의 공들인 치장과 더불어 지위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귀족적 여유의 에토스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말투, 몸짓 등의 각종 신체 운용의 테크닉에 의해 가시적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식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전체적인 아우라(aura)로서 엘레강스 개념(Dariaux, 1964; Feldon, 1982)이다.

복식미의 판단에 있어서 먼저 판단되는 것은 형식적, 외형적인 면의 구현인 조형성이지만 이와 더불어 내용적 의미, 즉 미적 가치의 판단이 요구된다. 앞서

고찰된 엘레강스의 미적 특성을 복식의 특수성에 적용해볼 때 사치성은 고가성을 전제로 하며, 희귀하고 풍요로움, 그리고 탁월한 품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밀끔하게 완성된 작업의 장인 정신, 진품성을 뜻한다. 품위성은 좋은 품행, 예의범절을 갖춘 숙녀다움과 관련되어 단정함, 예절 바르고 정숙함, 아울러 격식에 적합함을 뜻한다. 세련성은 문명성, 도회성, 인간의 기교를 의미하는 인공성, 시간을 통해 완숙해진 기교의 성숙함, 섬세하고 까다로운 기교의 정묘를 의미한다. 여성성은 역동적인 움직임의 코드의 남성성과는 달리, 섬세, 미묘, 유려, 감미로움의 매력을 갖는 여성적 매력미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조화성은 하나의 요소의 과장이 아닌 중庸, 각 부분, 부분들과 전체의 상호간의 유기적인 통일성, 인체와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생명력 있는 형태의 초감성적 인격의 감성표현을 뜻한다.

2. 복식에서의 엘레강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I) 20세기 이전의 엘레강스 스타일

복식의 역사에 있어 엘레강스는 인간의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해왔다. 그러나 복식사의 시대 양식에 있어 본격적 의미의 ‘연구된 엘레강스(studied elegance)’의 개념은 16세기 매너리즘으로부터 비롯된다(D'Assailly, No date). 이후 보편적 시대 양식 구분과 시대적 추구가치에 근거한 양식의 분류에 따라 엘레강스 스타일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특수한 틀 안에서 작동하여 약간의 다른 추구점을 보이며 나타났다. 16세기 사치스럽고 딱딱한 격식을 강조한 궁정 중심의 매너리즘 시기의 엘레강스와 17, 18세기 살롱 문화를 중심으로 좀더 경쾌하고 생기 있으며 화려하고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의 귀족적인 살롱의 엘레강스, 부르주아의 엄격한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19세기 빅토리안 시기의 엘레강스 스타일은 각각의 미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조합해볼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형성은 정교하고 조화롭게 다듬어진 부드러운 선, 형, 미묘한 색, 빛, 섬세한 재질로 나타났다. 선, 형은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형, 부드럽게 융화된 외곽선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은 디테일의 통합에 있어 유기적인 통일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사용된 색상의 범위는 부드럽고 미묘한 색상 톤으로 옅고 감미로운 페일 톤과

파스텔 색상 그리고 가장 섬세해 보이는 중성 톤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외에 노동의 배제를 암시하는 흰색, 세련된 절제를 뜻하는 검은색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색, 빛은 미묘한 조합을 통해 세련된 조화를 완성시켰다. 소재로는 고가, 고품질의 소재로, 실크, 쉬폰, 벨벳 등과 같이 섬세하고 연약하여 다루기 힘든 소재들, 계층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링크, 담비 등의 털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소재들 역시 정교한 조합과 풍부한 표면장식을 통해 섬세하고 미묘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이와 같은 조형성을 갖는 복식과 함께 외모와 신체 윤용방식이 엘레강스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외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우아한 골격, 섬세한 얼굴, 노동이 배제된 섬세한 손과 작은 발, 흰 피부 등 나태해 보이는 모든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세련된 언행, 갈고 다듬은 매너, 귀족적인 초연하고 자연스러운 품위의 태도에 의해 엘레강스를 완성했다.

엘레강스 스타일에 있어 엘레강스의 모든 미적 특성, 그 중 특히 엘레강스 개념의 중심이 되는 세련성, 조화성은 거의 모든 시대 양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대별 추구 가치에 따라 엘레강스 스타일의 조형성과 마찬가지로 구별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조합하여 공통점을 추출해보면 사치성은 고가성, 희귀성을 뜻하는 값비싼 엘레강스로 나타났으며 품위성은 숙녀다움과 관련된 주로 품행의 도덕적, 정신적 측면으로서 거의 모든 양식에서 중요시되었으나 특히 격식을 강조한 매너리즘, 빅토리안 시기에 더욱 의미가 부여되었다. 여성성은 경쾌하고 섬세한 곡선의 리듬, 공간과의 미묘한 융합을 통한 미세한 아름다움으로 섬세하고 감미로운 살롱 엘레강스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2) 20세기 이후 엘레강스 스타일

앞 절에서 고찰한 20세기 이전의 엘레강스 스타일의 보편적 미적 특성은 20세기 이후 엘레강스에도 그 맥을 같이 하지만 20세기 모더니즘적 사고, 취향의 영향으로 그 형식의 구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도래되었다. 20세기 이전 빅토리안 시대까지 나타난 엘레강스가 많은 노동력과 풍부한 재료가 소요되는 장식적인 값비싼 엘레강스로 나타났다면 20세기 이후 엘레강스는 보다 절제적인 측면의 비가시적 세련성, 진품성을 강조하는 품위 있는 사치의 은근한

엘레강스로 나타났다.

20세기 이후 모던 엘레강스는 새로운 우아함, 엄격성과 건축적인 통일성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미(Lipovetsky, 1994/1999, p.234)를 추구한 모더니즘의 미학에 입각하여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산업사회 이후 등장한 기계생산의 미학과 더불어, 직업에 근거한 신분 구조의 변화, 나아가 능률 및 기능 지향의 사고방식 등에서 비롯된 절제 코드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Hollander에 의하면 모더니스트의 미학으로 이성화된 Chanel, Grès, Vionnet 등의 디자이너의 선도 하에 오트 쿠튀르는 이제 ‘일하는 아름다움(working beauty)’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했다(Wollen, 1997, p.13). 이는 여성이 치장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현대적 요구를 접합시킨 새로운 우아함의 미학을 구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세기의 세련되고 정교한 여성성은 이전 시기에 유행한 이상이었던 코르셋으로 만들어진 과장되게 작은 허리를 지닌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게 강조되는 윤곽을 보여주는 성숙하고 숙녀다운 우아한 여성이었다 (Thesander, 1997, p. 142). 20세기의 우아한 여성상은 Grace Kelly 같은 클래식한 여성상 외에, 좀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Simpson여사, Jacqueline Kennedy의 이미지 그리고 Audrey Hepburn같이 마르고 순수한 여성의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상의 현대적 이상형을 성취하면서도 20세기 여성복은 명백하게 여성적인 설계를 고수하였고, 전통적인 젠더 개념을 유지하였다. 여전히 여성답고 정숙한 숙녀다움은 현대의 여성 패션에서 끊임 없이 만연되어 왔다.

여성복식에 있어 모던 엘레강스의 조형성을 살펴보면, 형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체를 덮구속하는 절제된 단순한 형이, 색상은 고운 톤 이외에 비가시적인 무채색이 사용되었고 이전에 사용되었던 실크, 쉬폰, 새틴 같은 여성적이고 고급스런 소재 외에 고품질의 잘 정련된 세 번수의 울 소재, 캐시미어 같이 많은 시간, 노력이 요구되는 직물이 사용되었다. 모던 엘레강스에 있어서는 단순하지만 실제 공정에 있어서는 복잡한 완벽한 가공과 흠없는 맞음새를 위한 완벽한 재단이 중요시되었다. 이는 어울리는 액세서리와 함께 격식에 맞는 조화로운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가장 부각된 미적 특성은 품위성, 세련성, 조화성

이었다. 여기서의 세련성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순수하고 추상적인 절제의 언어였는데, 이는 품위성과 연관되어 순수주의적인 미묘한 구별의 비가시성을 이끌었다.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에 있어 구별 짓기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은근한 품위있는 사치로서 진품성을 보이는 소재의 품질, 맞음새, 가공 등과 미묘한 디테일에서 가능해진다. 모더니즘 아래 복식에서 정숙함과 은근함은 보석으로 치장된 부를 한껏 과시한 복식보다 종종 진정한 사회적 지위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징표로 간주되게 되었다(Watt, 1999, pp.62-63).

양식사적 고찰 결과 엘레강스는 20세기 전반까지 보편적 시대 양식의 중심적 미적 범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는 20세기 전반까지의 서양복식의 각 시대별 역사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왕실과 귀족, 상류계층의 아비투스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복식의 역사였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패션에 있어 세련되고 성숙함, 격식의 갖춤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 엘레강스 스타일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1990년대 이후 패션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대한 고찰

1. 엘레강스 스타일의 어휘에 대한 내용분석

본 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패션에 있어 엘레강스 스타일이 어떤 비중을 갖고 나타났으며, 어떤 스타일로 체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통해 패션 전문 잡지 *Vogue*에 실린 기사를 고찰하였다. 패션기사의 저술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는 제한적인데, 소재, 색상, 패턴, 실루엣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 감성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Merriam은 중산층의 정기간행물은 꽤 직선적인 데 반해, *Vogue*와 같이 좀더 수준 있는 정기간행물들은 분위기의 담론을 주고 가격, 사이즈 같은 항목은 생략하고 권위 있는 감성적 형용사를 사용한다고 했다(Steele, 1997, pp.42-43). 본 절에서는 패션 기사 속에서 스타일의 감성 이미지, 넓게는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형용사를 추출함으로써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 엘레강스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한다.

*Vogue*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총 663개의 기사 중 ‘elegant’를 포함한 기사는 총 57개였다. 이외에 엘레강스와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로는 ‘sophisticated’와 ‘chic’였으며 그 외에 ‘ladylike’, ‘refined’, ‘subtle’ 등이 있었다. 이들은 엘레강스에 있어 주로 세련을 뜻하는 단어였고 ‘ladylike’의 경우 품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세련 이외에 엘레강스 스타일을 서술하는데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1).

상기한 단어 이외에 세련의 정묘를 뜻하는 ‘understated’, ‘exquisite’, 도회성을 뜻하는 ‘town’, ‘urban’, 품위성의 적합을 의미하는 ‘right’, ‘proper’, ‘correct’, 단정을 의미하는 ‘polished’, ‘neat’, ‘groomed’, 사치성을 뜻하는 ‘luxury’, ‘opulent’, ‘rarefied’, ‘dazzle’, ‘splendor’, 여성성의 ‘delicate’, ‘fragile’, ‘gentle’ 조화성을 뜻하는 ‘matching’ 등이 엘레강스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전반적으로 엘레강스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이는 스타일에 있어 개인취향의 발달과 포스트모던의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인다. 엘레강스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연도별로 보면 1995년, 1994년, 2000년의 순으로 1990년대 중반에 엘레강스에 관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레강스 스타일을 설명하기 사용된 형용사를 통해 각각의 스타일이 추구한 미적 가치를 파악할 수

<표 1> *Vogue*에 나타난 엘레강스 관련 어휘 분석

관련 연도 어휘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sum
elegant	3	4	3	5	4	16	3		4	4	9	2	3	57
ladylike	3	2			2	9			3	1	3		1	24
sophisticated	2	6	1	2	7	6	6	3	2		3	1		39
chic	2	1	2	1	9	2	1	1	3	1	2	1	2	28
refined	1	3		2	3	3				1	1		2	16
subtle	3	1	1	1	2	2	1					1		12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을 추출해본 결과 4가지 엘레강스 스타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주로 모더니즘 시기의 엘레강스 스타일의 재해석으로서 나타난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은 ‘elegant’, ‘sophisticated’라는 단어와 함께 ‘ladylike’, ‘right’, ‘proper’, ‘polished’와 같은 품위성과 관련된 형용사군과 더불어 ‘traditional’, ‘classic’, ‘conservative’ 등의 클래식, 보수성을 뜻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뜻을 고려할 때 이는 엘레강스의 미적 특성 중 품위성을 특히 강조한 엘레강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클래식 엘레강스(Classic Elegance)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엘레강스 스타일은 1990년대에 있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 중반에 아주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쿠튀르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매년 기사화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 말 뚜렷이 가시화되고 있는 전위적인 쿠튀르의 디자인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장식적인 오트 쿠튀르의 귀족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스타일에 대한 기사 역시 항상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쿠튀르의 엘레강스 스타일을 장식적 쿠튀르 엘레강스(Elaborate Couture Elegance)라 정의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스타일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exquisite’, ‘luxury’, ‘opulent’, ‘rarefied’, ‘delicate’ 같은 표현으로서 이는 사치성, 여성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미니멀리즘에 관한 기사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1990년대의 가장 큰 패션 디자인의 특징 중의 하나가 미니멀리즘이어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legant’, ‘sophisticated’라는 단어와 함께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스타일이 설명될 때 사용되는 단어는 ‘urban’, ‘town’ 등의 도회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며 ‘feminine’, ‘soft’, ‘romantic touch’ 등의 표현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미니멀리즘이 최소장식표현기법의 하나로서 때로 중성적인 경향의 무(無) 장식으로 흐를 수 있는데 반해, 장식의 개념이 전적으로 배제되기보다는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낭만적인 감성의 디테일을 포함하는 미니멀리즘이 엘레강스를 구현할 수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소 중성적이고 금욕적인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대비해서, 이러한 스타일들을 소프트 미니멀리즘 엘레강스(Soft Minimalism Elegance)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외에 흥미로운 점은 ‘elegant’란 단어와 ‘punk’, ‘street’ 등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과 ‘sophisticated’와 ‘deconstruct’와 같은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 그리고 ‘couture’나 ‘ladylike’, ‘traditional’ 등과 ‘avant garde’, ‘street’, ‘trashy’와 같은 단어들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타일을 ‘punk’, ‘street’, ‘deconstruct’, ‘trashy’ 등의 키치적 속성을 고려해서 키치 엘레강스(Kitsch Elegance)라고 명시하고자 한다.

2. 엘레강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1) 클래식 엘레강스

오늘날 패션은 의류산업의 광범위한 자본화, 민주화에 따른 소비자의 증가, 정보 흐름의 가속화 등으로 그 수명이 단축되었다. 상류계층은 전에는 빠른



<사진 1> 1960년대, 90년대의 클래식 스타일
(Decades of Beauty, (1998), p.137; Vogue, (1990. 2.), p.268; Vogue, (1990. 2.), p.274.)

패션 수용으로 과시의 우아함을 보였으나 이제는 은근함으로 자신을 구별시킨다. McCracken은 상승중인 지위를 가진 집단은 종속하는 집단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지위의 표지로서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지만 오히려 부와 세습적인 지위가 안전한 최상류집단은 비교적 최근 패션에 냉담한 경향이 있다고 했다(Craine, 2000, p.7).

이러한 고귀한 지위의 선점자들이 복식에 있어 많이 사용하는 코드는 클래식 엘레강스이다.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은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스타일로 유행과 관계없이 매년 등장하는데, 오늘날 많은 클래식들은 샤넬 타입의 박스 재킷 수트, 리틀 블랙 드레스, 셔츠 드레스, 테일러드 수트, 트윈 세트 등 20세기 전반 패션에서 온 것으로 현재 유니폼처럼 선택되는 것들이다(사진 1).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은 왕실, 상류계층 여성의 모습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위 상징의 복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한결같은 우아함과 단순성으로 정의되는 ‘진실한 세련됨’(Anspach, 1967, p.249)과 탁월한 완성도를 갖는 디자인으로서 영속적인 영역을 점유하고 있다.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의 공통점은 고급의 섬세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부드럽고 미묘한 스코틀랜드 트위드, 하운즈 투스(hounds tooth) 체크, 울 부클(boucle) 혹은 천연소재들, 무채색, 혹은 계층을 상징하는 색상,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 수명, 편안함과 기분 좋은 맞춤새, 점잖고 고급스런 액세서리 등 트레이드마크로 고착화된 진품들이다.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의 단순한 디자인은 영속적인 우아함으로 인해 모방되기 쉬운 것으로 고급의 품질, 뛰어난 가공이 엘레강스의 미묘한 구별에 있어 관건이 된다. 따라서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에 중요한 미적 특성 중의 하나는 탁월한 품질의 변함없는 디자인의 진품성이다. 또한 격에 맞는 액세서리와 단정한 몸단장 등 단정성, 격식성 그리고 적절한 행동, 부, 권력 세대에게 부여된 확신 있는 분위기 등 적합성을 갖는 개인적인 엘레강스의 우아한 아우라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은 전통적인 엘레강스(traditional elegance)로 캐주얼과 스포티 룩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협통 좋은 지위에서 오는 품위, 격식, 단정함, 선택적 보수주의이다. 클래식 엘레강스는 끊임없이 변하는 유행의 영향에 민감

한 감성적 표현적 욕구에 근거하기 보다는 사회성을 중시한다.

2) 장식적 쿠튀르 엘레강스

엘레강스 스타일에 있어 빅토리안 시기이래 장식적 엘레강스는 오트 쿠튀르의 사치스럽고 정교하며 여성적인 이브닝 컬렉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오트 쿠튀르는 무엇보다도 우아함, 창조적 상상력, 변화의 이름으로 패션에 있어 별개의 권위를 행사하는 전문화된 권력의 구성물이다. 쿠튀르 의상은 완벽한 수공예, 흠 없는 재단, 완벽한 스티치 등과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엘리트주의의 구별력을 갖는 스타일과 완성도 있는 테크닉을 강조한다. 이는 고객이 사교 모임에서 타인들에게 의해 꼼꼼히 검열될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트 쿠튀르는 엘레강스의 공통된 미학을 부과해 주었다. 쿠튀르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여성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어울리게 옷을 입어야 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류계층의 여성적인 매력을 추구해야 했다(Lipovetsky, 1994/1999, p.172). 모든 여성들은 귀중하고 이상적인 여성성을 활기 있게 하면서 사치스런 우아함과 세련된 멋을 최고도로 구현하기를 갈망했다. 따라서 쿠튀르의 엘레강스는 정교한 기교, 뛰어난 품질, 완벽한 수공예, 상류계층적인 사치스런 우아함을 갖는 장식주의, 엘리트주의의 엘레강스를 뜻하는 것이었다. 쿠튀르의 독점적, 섬세한 소재는 항상 값이 비쌌고 고도의 손작업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했다. 또한 맞춤복의 완벽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했다.

쿠튀르 의상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소수의 고객만



<사진 2> 쿠튀르 수공 (Vogue, (1996, 4), p. 284.)

이 남아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전통은 영속되었다. 그 이유는 신체, 외모 관계를 한정하는 그들의 역할에서 비롯된다(Craik, 1994/2002, p.114). 이들은 여가, 패락, 엘리트주의, 그리고 과시적 소비를 특징으로 삼는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의 상류 문화의 이미지를 판다. 상류계층적 이미지의 유지를 위한 쿠크루의 컬렉션은 여전히 뛰어난 수공예 정신의 극도로 정교하고 화려하며 사치스러운 엘레강스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사진 2>의 Chanel의 화려한 금색 이브닝 드레스는 무려 1,260시간에 걸쳐 완성된 정교한 작업이라고 한다.

쿠크루 엘레강스 스타일의 조형성은 환상적인 풍요로운 형, 정교한 디테일, 섬세하고 미묘한 색상, 때로 과시적인 밝은 색상들, 고급스럽고 다루기 힘든 귀족적 소재인 실크, 태피터, 벨벳, 쉬폰 등으로 나타났다. 미적 특성에 있어서는 희귀하고 고급스런 소재, 테크닉, 구별 짓기의 사치성, 섬세하고 정교한 여성성이 가장 부각되어 나타났다.

3) 소프트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1990년대 패션은 다원성 속의 미니멀리즘의 시기로 설명된다. 미니멀리즘은 순수주의 디자인의 연장선으로서 전체적 구성 체계를 극도로 단순화시키는 세련화의 극치인 순수 추상주의를 뜻한다. 때로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구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획일화되며 기능과 용(用)만을 강화하는 스타일로 구현되어 엘레강스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위와는 달리 미니멀리즘의 기법을 사용한 엘레강스에 있어서의 특징은 장식의 절제를 통한 세



<사진 3> Armani, 미묘한 토프톤, 드레이프
(Armani, 2000). p. 43)

련되고 순수하고 단순한 구조 속에 은근하고 미묘하게 장식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Vogue*에서 표현된 이러한 요소들은 부드럽고 여성적인 실루엣, 미묘하게 세련된 색상, 정교하고 미묘한 디테일, 미니멀리즘 속의 낭만적인 감성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은근한 엘레강스 스타일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Armani이다. <사진 3>의 미묘한 토프 색상의 수트는 부드럽게 흐르는 드레이프와 섬세한 톤 온 톤(tone on tone)의 색상 조화 속에서 세련되고 은근한 엘레강스를 잘 나타내준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흠없는 몸단장에 있다. 이는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스타일의 완성과 조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Vogue*에서 미니멀리즘 엘레강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polished’라는 단어가 몸단장의 개념과 연결지어 자주 등장한 점을 이를 입증해준다.

요컨대 소프트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스타일은 절제된 선, 형, 그리고 더불어 획일화, 금욕화되지 않는 낭만적 흥취를 더한 디테일들, 세련된 중성조, 무채색의 색상, 고급스런 세 번수의 울, 캐시미어, 때로는 여성적인 실크, 상텅, 벨벳 등의 조형성을 지니며 단정성의 품위성, 세련성, 조화성의 미적 특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4) 키치 엘레강스

앞 절의 내용분석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Vogue*의 패션 기사 속에서 일부 ‘punk’, ‘street’와 같은 대중적 하위문화를 상징하는 단어들과 함께 엘레강스가 합성되어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었다. 이는 엘레강스 스타일을 언급함에 있어 많지는 않았지만 1990년 이후 기사에 있어 꾸준히 등장한다. 엘레강스에 포함된 귀족적 취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상당히 모순된 것으로 생각된다.

펑크는 특히 상류계층의 귀족적 취향에 반발하여 등장한 하위문화 스타일로서 값싸고 번쩍거리는 의도적인 장식을 통해 가난, 혐오, 비정숙, 단정치 못함 등의 키치적 속성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이는 철저하게 엘레강스와는 대조적인 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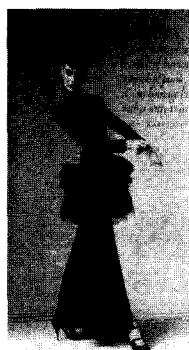
그러나 포스트모던 상황에서는 이러한 키치적인 하위문화 스타일조차 본래의 파괴적 의도를 상실한 채 신선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하나의 영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 속에서 반대적 입장의 엘레강스 스타일로서 이

에 대한 갈고 다듬어진 정제의 디자인이 등장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다.

<사진 4-2>의 Chanel의 클래식한 수트를 재해석한 디자인은 동성애의 블리츠(blitz)문화에서 보이는 평크의 튜튜(tutu) 스타일을 <사진 4-1> 정제시킨 디자인이다. 평크의 값싼 소재, 재단의 부조화를 보이는 스타일은 고급 소재, 완벽한 가공, 격식에 맞는 액세서리의 조화로운 착용 등을 통해 원작의 평크스타일



<사진 4-1> 1986년 Blitz의
튜튜(tutu) 스타일



<사진 4-2> Lagerfeld의
평크 쿠튀르

<사진 4> Chanel의 평크와 클래식의 결합
(*Women & Fashion*, 1989), p.65; *Vogue*, (1996. 4.), p.291.)

의 영감을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묘한 조화를 이루며 완성도 있게 정제되었다. 평크의 튜튜 디테일이 차용된 부분은 부드러운 쉬폰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사용된 그대로 자른 밑단처리의 기법은 쉬운 작업으로 보이나 여러 시간에 걸쳐 완성된 정교한 수공예로서 엘레강스의 꾸미지 않은 듯한 노력의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키치 엘레강스에 있어 조형성은 기존의 클래식한 고급 디자인으로서 하나의 토템(totem)으로 고착화된 디자인에 갈고 다듬은 세련화시킨 키치의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클래식 엘레강스 스타일을 재해석함에 있어 키치의 요소나 기법을 도입하여 세련과 조화의 미학을 이루어내었다. 키치 엘레강스에 있어 부각되는 미적 특성은 주지적 세련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마치 예술에서 팝아트가 키치를 고급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키치로 전락하지 않고 엘레강스의 위상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고급스런 품질의 사치성, 품위성을 갖추는 것과 키치에서 흔히 보이는 부조화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련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Vogue*의 엘레강스 스타일을 고찰해 본 결과 그 미적 특성은 <표 2>로 요약될 수 있다.

<표 2>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엘레강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클래식 엘레강스	장식적 쿠튀르 엘레강스	소프트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키치 엘레강스
외보, 신체적 언어	부드러운 웨이브 헤어, 붉은 립스틱, 신중한 화장과 흠없는 몸단장 스타일의 자신감의 아우라	루비 립스틱, 장식적 헤어 완벽한 화장 오만한 태도	새로운 축축적 비례의 슬립한 신체, 흠없는 몸단장, 태도 중시	어두운 눈장의 테카당트 스타일 혹은 좀더 몸단장의 강조
선, 형	깨끗한 재단의 모더니즘의 복고적 선, 형	여성적 곡선을 살리는 선, 형	날씬하게 흐르는 선, 형	다양한 실루엣
색	무채색, 풍부한 색감의 밝은 색, 소르베 톤	부드러운 페일, 진주 광택, 금, 은 무채색, 풍부한 색감	중성색, 색조 있는 중성조로서 페 일, 파스텔	다양한 색상 검정과 파스텔, 밝은 소재의 혼합
재질	부드러운 크레이프, 새틴, 토웨이, 하운드 퍼스, 부클, 상팅 등	타파타, 레이스, 화이유, 런, 상팅, 벨벳 등	고급 울, 캐시미어, 실크, 벨벳, 부드러운 저지 등	가죽 + 풀, 새틴 부클 + 쉬폰 PVC 같은 합성섬유 등 다양
디테일	완벽한 테일러링, 수작업의 가공 (안감 처리, 단추 등)	자수, 비단, 풍부한 디테일, 표면장식	완성도있는 가공, 바이어스 컷, 작 은 비딩, 탑 스티치 등	평킹, 그대로 올풀기 등 (제작, 가공의 고급스러움)
아이템	사넬 수트, 작은 김정 드레스, 앙상블, 수트	부드러운 가운, 부스티에, 웨딩 드레스	부드러운 테일러드 수트, 흐르는 원피스, 바지, 쉬즈	클래식 스타일과 하위문화 스타일의 디테일의 공존
액세 서리	퀼리 백, 장갑, 모자 토토 백, 진주목걸이 복고조 선글라스 전체로서의 복 형성	티아라, 값비싼 보석, 넓은 챙의 모자, 깃털, 긴 장갑, 장식적 신발	대담한 단순한 액세서리, 하이힐, 투명한 스커팅	체인 장식된 벨트 화려한 장신구, 모자 등
미적 특성	★품위성(격식, 단정, 적합) · 사치성(진품) · 세련성, 조화성	★사치성 ★여성성 · 세련성, 조화성	★품위성(단정) · 세련성, 조화성	★세련성, 조화성 · 사치성, 품위성

★는 스타일별 특징적 미적 특성

IV. 결 론

연구 결과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엘레강스 스타일은 클래식 엘레강스, 장식적 쿠티르 엘레강스, 소프트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키치 엘레강스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 중 클래식 엘레강스는 모더니즘 엘레강스 스타일의 복고 양식으로서 격식, 단정, 적합 등의 품위성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장식적 쿠티르 엘레강스는 쿠티르 미학을 계승하여 섬세한 예술적 기교의 여성성, 사치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 둘은 전통적, 보수적 성향의 엘레강스인 것에 반해, 소프트 미니멀리즘 엘레강스는 단정의 품위성, 도회적 감각의 세련성, 조화성을 보인, 보다 현대적인 해석의 엘레강스였다. 한편 모든 미학이 공존하는 포스트모던 미학에 따라 저급 취향으로서 배격되어온 키치 조차도 상류계층의 구미에 맞게 정제되어 세련성과 조화성의 엘레강스 미학에 편승한, 포스트 모던 특수성을 갖는 엘레강스로서 나타났다.

연구 결과 16세기에서 20세기 전반까지의 패션은 상류계층의 상징으로 그들의 생활양식과 취향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이후 빠른 기술 진보로 패셔너블하면서 값싼 기성복이 모든 계층에 분배됨에 따라 상류사회의 배타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대중 패션의 성장과 더불어 젊음, 캐주얼의 강조는 패션의 혜개모니의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세련되고 성숙함, 격식의 갖춤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도 밝혀진 바 엘레강스는 여전히 다양한 양태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엘레강스는 세련과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한정이 완전한 적도, 중용으로 나타나므로 과도의 아방가르드에 비해 정통적인 미로서 보수적 안정성을 갖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선호된다. 엘레강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상류계층적 암시에 있다. 계층적 우월함의 정치적 코드를 암시하는 엘레강스의 권력은 과장된 위엄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은근하고 섬세한 매력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엘레강스한 옷차림은 완곡한 표현의 권력을 보여주는 옷차림(understated power dressing)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선정한 사례들은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된 복식에서의 엘레강스 개념을 토대로 한 패션 저널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편집자의 주관

이 개입된 해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현대 한국 패션은 비교적 격식을 갖춘 깔끔한 수트 차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 한국 패션에 있어 표현된 구체적인 엘레강스 스타일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 역시 엘레강스의 문화적 특수성과 한국인의 미의식을 분석하는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정숙. (1996). *키치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풍자성, 패락성, 향수성, 유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선형. (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춤의 개념 :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정화. 유영선. (1998, 9).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호.
- Anspach, K. (1967). *The why of fashion*.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79).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최종철 옮김 (1997).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 Caroline E. & Minna T. (1989) *Women & fashion*. NY: Quartet Books.
- Craine, D. (2000). *Fashion & its social agenda : Class, gender & identity in cloth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aik, J. (1994). *The face of fashion*. 정인희 외 옮김 (2002). *패션의 얼굴*. 서울: 푸른솔.
- Dariaux, G. A. (1964). *Elegance : A complete guide for every woman who wants to be well and properly dressed on all occasion*. NY : Doubleday & Company.
- Diassaily, G. (No Date). *Age of elegance : Five thousand years of fashion and frivolity*. Hachette.
- Empas 사전. 자료 출처 <http://dic.empas.com>
- Feldon, L. (1982). *Dressing rich : A guide to classic chic for women with more taste than money*. Universe.com. Inc.
- Lipovetsky, G. (1994) *The empire of fashion*. 이득재 옮김 (1999). *패션의 제국*. 서울 : 문예 출판사.
- Mulvey, K. & Richards, M. (1998). *Decades of beauty : the changing image of women 1890s-1990s*. NY: Reed.
- Schiller, F. The Aesthetics of Schiller. 장상용 옮김. (1999). *슐러의 미학 예술론: 칼리아스의 편지*. 우미와 존엄 외.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 Steele, V. (1997). *Fifty years of fashion-new look to now*.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1989). Oxford: Clarendon Press.

- Thesander, M. (1997). *Feminine ideal*. London: Reaktion Books.
- Vogue in America*. (1990-2002).
- Watt, J. (Ed.). (1999). *Fashion writing*. London : Viking.
- White, N. (2000). *Giorgio Armani*. London: Carlton Books.
-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1). Springfield : G & C Merriam Company.
- Wollen, P. (1998). *Addressing the century, Addressing the century-100years of Art & Fashion*. London: Hayward Gallery.
- Yahoo*사전. 자료 출처 <http://kr.engdic.yahoo.com>